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보건행정경영학과	이름	김**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t.Paul
파견대학	Concordia University	파견기간	2019-2 ~ 2020-1 (두학기)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십분 거리에 target이라고 큰 마트가 있어서 장보거나 간단한 준비물 등을 사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이불 같은 것도 막 학교에 도착해서 급하게 사야한다면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걸어서 12분 정도 거리에 우체국(학교에도 있는데 거기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 처리할 수 있는 곳), 경찰서, 휘트니스센터, 옷가게, 또 다른 큰 마트, dollar tree 등 정말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버스와 전철도 잘 되어있어서 다른 큰 도시로 가는데도 20분밖에 안 걸리고 거기에는 모든 식당, 바, 카페, 옷집, 구경거리 등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구 경기 관람하는 경기장, 네일샵, university of Minnesota도 모두 전철을 타고 20분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p>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회계용어부터 기본적인 이론을 알려주고 교수님과 함께 문제를 풁니다. 과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배웠던 것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풁니다. 수업준비를 따로 필요없고, 이전 수업내용을 과제를 통해 익히면 됩니다. 이 과목은 정말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교수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추천합니다.</p>

	<p>Ceramics 1</p> <p>이 과목은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수업인데 뒤로 갈수록 난이도를 점차 높여서 정말 도자기 만드는 법을 습득하고 끝내는 수업입니다. 도자기나 미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너무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하지만 관심도 없는데 그저 교양 느낌으로 쉬워보여서 듣는다면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3학점짜리 미술 전공 수업이고 교수님이 수업시간 이외에도 작업실에 나와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익혀야 될 정도의 과제 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p> <p>Health Care Finance</p> <p>저는 회계, 재무 관련 수업을 이전에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과제는 일주일에 4시간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과제는 양도 많고 난이도도 있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4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전공자 외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p> <p>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p> <p>이 수업이 국제학생들을 담당하는 Tiffany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입니다. 과제는 조별로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것이 두 번 있습니다. 또한, 개인 레포트를 두세 번 정도 쓰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제의 난이도가 낮고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에게는 필수 과목입니다.</p> <p>CSP Ringers</p> <p>매우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핸드벨을 올리면서 반 친구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곡을 연주하는 수업입니다. 난이도도 낮아서 금방 따라할 수 있고 곡을 연주할 때 화음이 잘 맞으면 정말 기분 좋고 힐링이 되는 수업이고, 교수님도 친절하시고 여유가 있으십니다.</p>
2019-1학기 수업	<p>Health care Information System</p> <p>이 수업과 다른 전공 수업 중 하나가 필요한데 둘 중에 뭘 들어야할지</p>

고민한다면 이 수업을 들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다른 온라인 수업과 비슷한 양의 과제를 주십니다. 일주일에 약 4시간 정도 필요한 양의 과제입니다. discussion하는 내용을 쓰고 학생들 서로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과제,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시험은 없습니다.

Painting 1

페인팅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작업실을 이용하는 fee가 육만원 정도이고, 그 외에도 페인트와 붓, 종이를 직접 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수업시간을 즐기고 재밌었지만, 페인팅 실력이 늘지는 않아서 도움이 되는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Applied Grammar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고 유쾌하신 분입니다. 제 미국인 친구들도 이 교수님을 극찬하여 듣게 되었는데, 정말 학생들과 잘 어울리며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를 주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수업 내용은 헛갈리는 문법들을 바로 잡는 수업이었고, 매주 영어책을 읽고 감상문쓰기, 퀴즈보기, 주제에 맞는 글 한 두 장 분량 쓰기였습니다. 글을 써서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문법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만족하고 얻어가는 수업이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문법적 용어를 영어로 설명해서 가끔 난해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책을 두 권 구매해야하는 수업입니다.

Human Resource Management

온라인 수업이었고, 책을 한 권 구매해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과제는 다른 온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discussion하는 글을 남기고, 퀴즈보고, 레포트를 매주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과제를 내주셔서 그 부분에서 얻어가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보통정도로 추천합니다.

Drug Education

	<p>약과 마약에 대해 간단한 지식을 배우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마약의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약하는 행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법화 되어야하는지 등을 배우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수업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과제는 퀴즈와 레포트가 격주 정도의 빈도로 있습니다. 다른 수업에 비해 과제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프리젠테이션을 각자 합니다. 추천합니다.</p> <p>Listening to Life : Global & Pop</p> <p>마지막에 무슨 수업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미국인 친구들이 추천하고 좋아하던 수업이라서 들었는데 음악에 관심이 없다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매우 좋으신 분이고, 아주 쉽게쉽게 들을 수 있는 순천향대학교로 비유하자면 ‘인간사랑’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과제는 매주 수업내용을 정리하는 레포트를 쓰고 격주로 퀴즈를 보았습니다. 시험도 보는데 범위, 중요한 부분을 다 알려주십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오리엔테이션은 학교 개강 전에 8월 말에 이삼일 간 합니다. 학교 구조도 알려주고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웹사이트 가입까지 그 자리에서 같이 하고 도와줍니다. 교환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Concordia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 프로그램, 리더쉽 프로그램, 게임하는 이벤트 프로그램, 나라별로 자국을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 동아리 등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s를 담당하는 Tiffany 선생님이 계십니다. 첫 학기 때 이 선생님과 수업도 한 개 같이 하고, 그 후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사무실에 들러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비가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아주 가끔 옵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우산을 쓴 적이 딱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정말 많이 옵니다. 겨울 옷 중에서는 롱패딩은 챙겨 오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나머지 겨울부츠 등은 그냥 여기서 사도됩니다. 세인트폴은 여름부터 한겨울까지 다 있으므로 사계절 옷 다 가져오시면 되는데,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옷을 중점적으로 챙기면 됩니다. 니트, 후드티, 후드집업, 맨투맨 등을 하나씩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안전한 편입니다. 사고가 난 것을 본적이 한 번도 없기도 하고 평소에 무서워하면서 살 곳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위 같은 걸 하면 학교 주변까지 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위하는 것을 학교에서 몇블럭 떨어진 거리에서 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저는 holst hall에 두 학기 모두 살았습니다. 여기에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싸지만, 그만큼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밥상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요리를 하려면 holst hall에 살아야 합니다. 분위기는 그냥 일반 기숙사와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모두 여기 살아서 친구들과 매일 마주치고 방에서 어울리기 정말 좋아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안에 빨래방, 헬스장, 간단한 간식 자판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4층까지 있으며 엘리베이터도 두 대 있습니다. 4인실을 썼는데 방은 한 명당 하나씩이고 4방이 한 집을 공유하는 식입니다. 거실과 냉장고, 부엌 ,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를 4명에서 공유합니다. 화장실은 2명당 한 개입니다. 보안은 아주 철저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o)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

	Meal Plan은 요리해먹기 귀찮고 수업 중간에 먹고 가기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파는 wrap이 그리울 정도로 맛도 괜찮았습니다. Half Meal plan을 신청하고, 기숙사에서 먹고 싶을 때는 밥 해먹는 것이 제 기준에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교통	기숙사에 살면 모두 걸어서 5분 안에 통학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가려면 전철로 15분~30분 정도이면 어디든 갑니다. 이 곳도 세인트폴과 바로 붙어있는 미네아폴리스 도시가 있는데, 전철로 15분이면 갑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200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div>202010 Fall Semester 2019 Term Detail</div> <table><thead><tr><th>Detail Code</th><th>Description</th><th>Charge</th><th>Payment</th><th>Balance</th></tr></thead><tbody><tr><td>BDRO</td><td>Meal Plan - Opt Out Holst</td><td>\$300.00</td><td></td><td></td></tr><tr><td>FARL</td><td>Art Lab Fee</td><td>\$60.00</td><td></td><td></td></tr><tr><td>HRLF</td><td>Holst Hall 4 Bedrm</td><td>\$3,590.00</td><td></td><td></td></tr><tr><td>T105</td><td>Undergraduate International</td><td>\$11,400.00</td><td></td><td></td></tr><tr><td>TTUT</td><td>Student Services Fee</td><td>\$1,200.00</td><td></td><td></td></tr><tr><td>CHEK</td><td>Chk#</td><td></td><td></td><td>\$5,150.00</td></tr></tbody></table>	Detail Code	Description	Charge	Payment	Balance	BDRO	Meal Plan - Opt Out Holst	\$300.00			FARL	Art Lab Fee	\$60.00			HRLF	Holst Hall 4 Bedrm	\$3,590.00			T105	Undergraduate International	\$11,400.00			TTUT	Student Services Fee	\$1,200.00			CHEK	Chk#			\$5,150.00
Detail Code	Description	Charge	Payment	Balance																																	
BDRO	Meal Plan - Opt Out Holst	\$300.00																																			
FARL	Art Lab Fee	\$60.00																																			
HRLF	Holst Hall 4 Bedrm	\$3,590.00																																			
T105	Undergraduate International	\$11,400.00																																			
TTUT	Student Services Fee	\$1,200.00																																			
CHEK	Chk#			\$5,150.00																																	
보험료	신한보험 30만원																																				
숙소	기숙사비 한학기당 429만원																																				
식비	70만원																																				

교통비	10만원	
책값	15만원	
기타1		
기타2		

5. 출국 전 준비사항

옷을 챙길 때 편한 옷만 챙겼었는데 조금 후회했습니다. 일단 편한 옷은 일 년 입고 한국 돌아갈 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지만 손이 잘 가는 옷을 가져오세요. 1년 후에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입던 옷들을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챙기세요. 그리고 예쁜 옷도 한두 개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예쁘게 입어야하거나 드레스를 갖춰 입고 가야하는 행사들에 참석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싸게 중고 옷을 파는 곳이 잘되어 있어서 옷과 드레스를 싼 값에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한 두 개쯤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가기 전에 무조건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알수록 1년 동안 지내면서 영어도 더 많이 늘고 알던 것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서 친해질 외국인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에서 친해진 제 친구들과 함께 한국 마트에 갔는데 한복입고 있는 곰인형 열쇠고리를 자기 돈 주고 사고 좋아하는 걸 보고 이런 거 미리 챙겨 와서 줄걸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값질 것이고 꼭 가고 싶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교환학생을 실제로 가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일도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잦아보니 문제에 직면해도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일들이 결국 저의 예상보다 잘 모두 해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겁내는 성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처럼, 모든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이 새로운 환경과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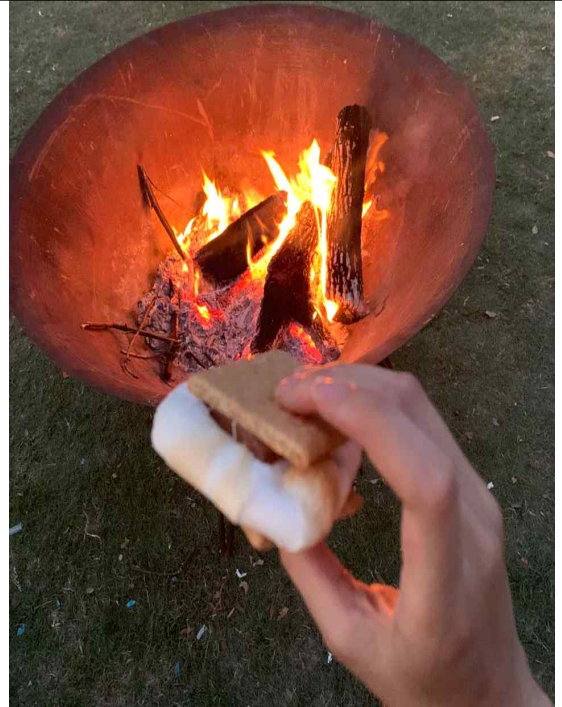
문화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나라 문화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다른 것에서 비롯해 미국인들과 나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가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서로 성격과 사고, 생활 등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과는 다름을 몸소 느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에서 말하자면, 가기 전보다는 확실히 현지에서 쓰는 표현이나 영어를 영어자체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공부를 거의 하고 가지 않아서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회화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무조건 느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영어공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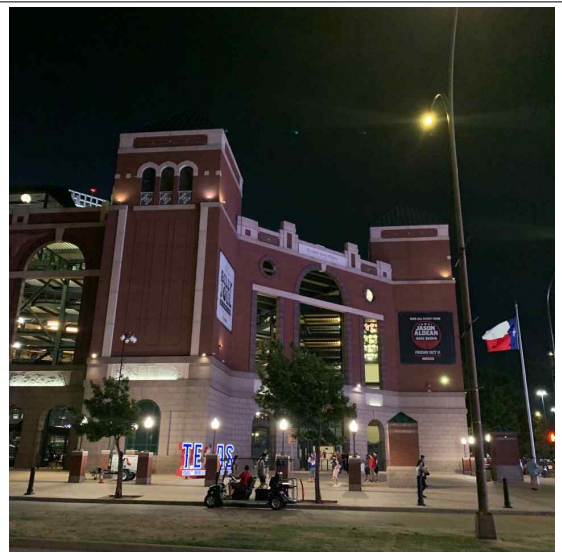
학교 주변 도자기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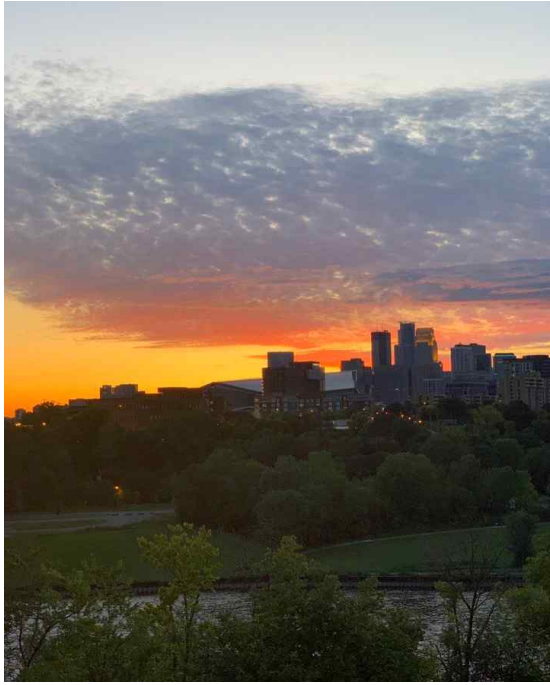
캠프파이어 때 스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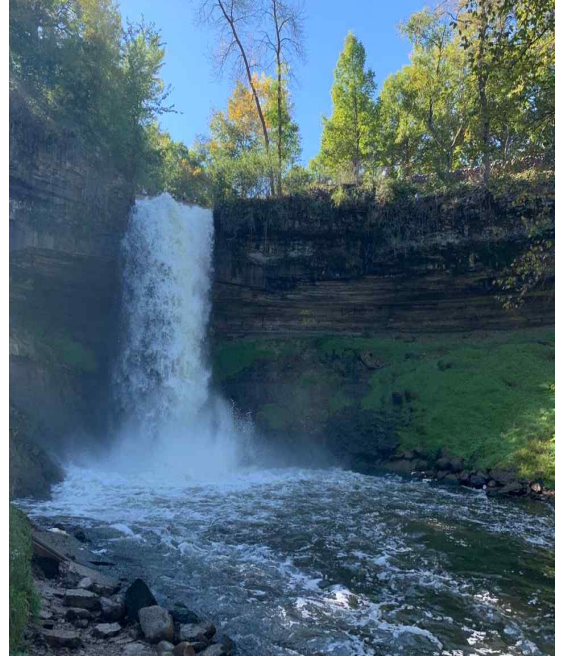
Holst Hall



텍사스 여행 중 알링턴야구장



university of Minnesota 산책



미네하하 폭포